‘유자골 고흥 한우’ 전국 최고 품질 입증했다

1++ 56.4%·1+ 81.3% 기록
축산평가 전국 최고 수준
초우량한우 63두 등 기반
“지역 한우농가 노력 결합”

‘고흥 한우 품격, 그 이상의 가치를 담다’라는 슬로건 아래 브랜드 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해온 고흥군의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가 전국 최고의 품질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축산물 평가원의 도축 성적 분석 결과, 1++ 등급 출현율이 56.4%로 2020년 대비 15.6% 증가했다. 1+ 등급 이상 출현율도 81.3%로 2020년 대비 9.3% 증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군은 전국 1위를 달성하기까지 축산농가와 함께 한우 개량사업에 힘을 모아왔다.

그 결과 고흥군은 현재 우량한우 639두를 보유해 전국 5위, 초우량한우 63두를 보유해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 최상위 수준의 한우 암소 기반을 갖췄다.

또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지난 2023년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산업단이 출범한 이후 참여 계열화 농가 300곳을 중심으로 TMF 사료 급여 일원화, 최적의 사육 환경 조성, 주기적인 사양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철저한 품질관리 및 유통망 확대를 통해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은 고급육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축산농가 사양관리 교육 시스템과 지역 한우농가의 노력이 결합해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군은 유자골 고흥 한우의 소비자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프리미엄 한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는 포부다. 고급육 출현율은 더욱 높이고 친환경 사육 시스템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군의 ‘유자골 고흥 한우’가 축산물 평가원의 도축 성적 분석 결과 전국 최고품질을 입증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 한우가 전국 최고품질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책개발과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장흥군, 목공예기능인 교육생 모집

장흥군은 오는 27일까지 ‘2025년 상반기 목공예기능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3월4일부터 개강하는 상반기 교육은 생활목공(초급, 중급), 생활목공 주말반, 서각 초급, 서각 작품반, 목선반 초급, 우드버닝(인두화), 스크롤쏘 반(목재 장난감, 퍼즐) 등 총 8개 과정이다.

90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목선반 초급과정을 추가로 신설해 체계적인 목공예 기능인을 육성할 방침이다.

군은 수강하는 교육생에게 수강료, 전동공구, 장비 등을 지원해 목공예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반기에도 심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 홈페이지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흥=김전환 기자

지난 19일 여수 르네상스 만덕동 실천본부 활동가들이 꽃가람공원 덕대천 일원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여수시 제공

청년문화예술패스 15만원 지원
장흥군, 19세 청년 대상

장흥군이 오는 3월6일부터 지역에 주소를 둔 19세(2006년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한다.

23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술 분야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합창, 국악, 음악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등)과 전시(미술, 공예, 애니메이션 전시, 캐릭터 전시 등) 관람비를 연간 최대 15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협력해 시행하고 있다.

발급 기간은 오는 3월6일부터 5월31일까지며, 6월30일까지 한 번도 공연 또는 전시를 관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된다.

신청·발급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가능하며 인터파크 또는 예스24에서 공연·전시 티켓 예매 시 사용 가능하다. 이용 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장흥=김전환 기자

여수 르네상스 만덕동 실천본부, ‘섬섬여수 가꾸기’ 활동

여수 르네상스 만덕동 실천본부가지난 19일 ‘여수 르네상스 실천본부 중점실천의 날’을 맞아 꽃가람공원 덕대천 일원에서 청결 활동을 진행했다.

23일 여수 르네상스 만덕동 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여수 르네상스 다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 핵심과제인 ‘아름다운 섬섬여수 가꾸기’의 일환으로, 지역 환경을 정비하고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실천본부 위원 20여 명은 최근 강풍으로 인해 하천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떠내고 공원 주변에 흩어진 플라스틱, 캔, 유리병, 잡목 등을 수거했다.

장혜숙 만덕동장은 “청결한 경관 조성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완성된다”며 “앞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 개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아름다운 섬섬여수 가꾸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26년 만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내년부터 적용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와 다양한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해 26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여수종합버스터미널과 서시장을 오가며 윗길, 아랫길로 편중됐던 중복·굴곡 노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72개에 달하는 복잡한 노선번호도 재편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낮 시간대 승객이 거의 없어 빈 차로 운행하는 노선들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용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집중 배차해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읍면 지역을 단거리로 순환하는 지선 마을버스도 도입한다. 장거리 구간은 빠르게 운행하는 간선 버스를 도입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지·간선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지·간선 체계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인 환승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월 중 25회에 걸쳐 읍면동별 주민설명회를 가질 방침이다.

또 오는 3월 착수 예정인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을 통해 타 지자체 사례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안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개편된 노선체계가 적용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신도심 개발 등 26년간의 수요 변화를 분석해 조정 배차할 계획”이라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해서 시내버스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생활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광양중마도서관

광양중마도서관에서는 봄학기(3월10일~4월16일) 6주 동안 유아들(5~7세)과 초등학생(1~2학년)을 대상으로 ‘봄학기 도서관 생활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령별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총 3개 반이 운영된다.

먼저 ‘책 속으로 봄나들이 가요’는 유아 5~6세를 대상으로 한 유아 맞춤 미술놀이며 ‘옛이야기 요술항아리’는 옛이야기를 주제 다양한 종이접기 놀이를 진행한다. 초등학생 1~2학년을 위한 ‘흥美진진 명화이야기’는 세계 여러 나라의 명화의 특징과 감상방법을 알아가는 책놀이 행사로 마련됐다.

이번 봄학기 도서관 생활 어린이 프로그램은 24일 오전 10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수강생(어린이) 이름(아이디)으로 신청해야 유효하니, 접수 전 신청자 정보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마도서관 봄학기 도서관 생활 어린이 프로그램 수강 신청과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http://lib.gwangyang.go.kr)을 확인하거나 중마도서관(061-797- 2447)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2025년 보성 미식화 아카데미
26일까지 CEO 60명 선착순 모집

보성군은 오는 26일까지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보성 미식화 아카데미’ CEO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23일 보성군에 따르면 ‘2025년 보성 미식화 아카데미’는 지난해 일반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올해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시행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위생 등급제의 관심도 제고, 음식문화 선도, 친절 서비스 강화, 경영 마인드 향상을 목적으로 오는 3월7일 개강해 4월16일까지 진행된다.

권역별 장소는 보성읍 행정복지센터(보성권역), 벌교읍 행정복지센터(벌교권역),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실습)이며, 총 11회(매회 2시간)의 수업이 운영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친절 교육, 선진지 견학, 마인드 힐링교육, 위생 등급제와 함께하는 청결 교육, 특산물 활용 요리 실습, 온라인 홍보 마케팅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및 종업원은 누구나 무료로 수강 가능하며, 참여자는 위생용품 지원,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 가산점 부여, 모범음식점 선정 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카데미 수강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군청 문화관광과 위생관리팀(061-850-5323) 또는 보성군 외식업지부(061-852-3849)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양종수 기자